

경기북부지역의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박주원*

¹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Activation Plan for Performing Art of the Northern Region of Gyeonggi-do

Joo-Won Park^{1*}

¹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Shinhan University

요약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국가발전의 의미를 예전과 같이 경제적 차원에만 두지 않고 나라의 문화적 역량과 예술적 수준으로 국가의 이미지와 자부심을 표상하고 있다. 즉, 우리는 문화예술시대에 살고 있다. 국내 각 지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연예술의 현대화로 탈 장르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융합, 새로운 미디어와 콘텐츠의 개발 등 공연예술의 특성화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욕적인 시도가 아직까지는 공연예술의 현장에 충분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의 공연예술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미래의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결과 경기북부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통한 브랜드화,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 공연프로그램의 다양화, 공연시설의 확대화, 예술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달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이 지역문화발전의 기초자료가 되고 지역문화예술 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essay, through overall theoretical studies and comparison analysis of a performing art situation, aims to search for the creation and direction of various performing arts and examined the prospect and activation plans for performing arts of the future. The summary of the main contents deducted from this research was as follows. First, branding through unique competitive contents was found only in Northern Gyeonggi-do. Secondly, excellent performing art human resource supply from the locality is an urgent priority. Thirdly, by propelling diversification of performing programs, the performing art consuming activation movement that induces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erformances was actively developed. Fourthly,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ultimate goal achievement of art policy is excell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professional education in each field of art.

Key Words : Activation plans for performing art, Performing art situation, Prospect for the performing ar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이제 국가의 발전은 경제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문화적 역량과 예술적 수준이 국가의 이미지와 자부심을 표상하는 문화예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선진국형 산업구조의 개편과 초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정서 안정, 여가선용, 자기계발 면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현대의 예술문화는 일정한 지역적, 민족적 특성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풍족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한류와 같이 경제, 문화산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다[1].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이후 복지로서의 문화 예술소비를 주장하고 1973년 한국문화예술원의 설립으

본 논문은 2013년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oo-Won Park(Shinhan Univ.)

Tel: +82-10-6239-7229 email: parkjoowon1@naver.com

Received October 6, 2014

Revised (1st October 28, 2014, 2nd November 5, 2014)

Accepted November 6, 2014

로 다양한 문예지원사업을 펼쳐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관객의 흐름과 호응, 전문공연장이 있어야 공연예술 활동이 가능하다는 공연예술의 특성 때문에 대도시 집중화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고양시, 구리시, 가평, 남양주, 연천, 파주지역을 지칭하며 한반도의 정·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일시대의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로서 수도권 대학의 이전이나 연장의 전망으로 문화·관광의 활성화, 문화콘텐츠 인프라산업과 교육인프라의 체계적, 전략적 육성이 매우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2].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지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혜택이 미비하다. 경기북부 각 지역에서는 지역 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특성화 방안이 검토, 일부 실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연예술 현장에 충분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술에 대한 평가와 기대효과가 재정립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이고 또한 통일시대의 거점도시이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점과 개발가능성을 지닌 경기북부지역의 공연예술 활성화는 필수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서도 문화격차를 보이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공연예술현황을 국내 타 지역과 비교 분석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공연예술의 흐름과 현황을 인지하고 미래의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지역 공연예술 분야의 다각적인 발전가능성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정서함양, 교양수준의 향상으로 아름다운 지역사회 건립과 동시에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예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공연예술의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과 경기북부지역과 타 지역의 공연예술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공연예술의 창작과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의 공연예술에 대한 전망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연예술에 관련된 단행본과 예술총서, 공연예술 원리와 역사, 국내 예술행정, 예술과 사회에 관한

서적, 정기간행물 및 선행연구물 등의 문헌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의한 통계자료를 참고하였고 또한 필요에 따라 심포지엄, 발표회, 정기간행물,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 자료를 재구성하여 논점의 핵심에 다다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진행을 살펴보면 첫째,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둘째, 이론적인 고찰에서는 공연예술의 개념과 특성, 경기북부지역의 특징과 문화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내 공연예술문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였고 넷째, 국내 공연예술문화 현황을 기초로 경기북부지역의 공연예술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다섯째, 결론으로는 연구요약 및 제언을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공연예술의 개념

공연예술의 사전적 정의는 무대에서 공연되는 모든 현대의 예술을 말한다. 즉, 무대와 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연주, 상연, 가창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출되는 음악, 무용, 연극 등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을 말하며, 오늘날 육체 그 자체로 표현하는 행위예술을 공연예술에 포함하기도 한다[3].

우리나라 「공연법」 제2조에 의하면 ‘공연은 음악, 무용, 연극,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연예술은 관람자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실연예술로 창조적 측면, 수용적 측면 그리고 이 양면이 결합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4]. 미국의 문화부를 대신하는 미국국립예술기금(NEA, The U. S.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www.art.endow.gov)의 <2002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나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www.culture.gov.uk)의<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1998> 등 각 나라의 문화부 자료에서 보면 공연예술의 대표적인 장르는 음악, 무용, 연극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대에 있어서 공연예술은 각 장르간의 융합과 새로운 매체의 발달로 광범위해져 뮤지컬, 퍼포먼스, 서커스, 판토타임, 인형극, 퍼레이드 등을 모두 포

함하고 있으며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공연 참가자들 즉, 연출가, 작가, 안무가, 기획자, 제작자, 홍보담당자, 공연장관리자까지 공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게 되었다[5].

이로써 오늘날 공연예술은 예술의 총합체로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된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여 예술 산업의 중간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2 공연예술의 특성

공연예술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예술적 형태로서 일반적인 특징을 지니는가 하면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제시하듯이 공연예술을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일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규정하고 공연예술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생각하는 산업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6].

그 일반적 특징은 현장성(공연자와 관객의 상호교감), 일회성(1회에 한하여 공연되는 순간예술), 집단성(공연자의 공동작업과 관객의 호응)이며 산업적 특징은 동시적 특징(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경험제의 속성(소비자 경험에 의해 시작), 시간 집약적인 특성(공급자의 실연), 공공재적 특성, 노동집약적인 특성, 대도시 집중화 특성, 예술산업의 중간체적인 역할 등으로 볼 수 있다.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는 공연예술은 일반적인 특징을 지니지만 생산과 소비의 개념으로 보는 산업적 특징의 공연예술은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과 더불어 현대 정보화 시대를 대변하듯이 T.V방송, 라디오, 디자인, 의상, 영화, 출판, 관광 등과 같은 관련 산업과의 보완관계도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 즉, 대중성과 독창성, 통합성과 상호보완성, 실용성과 기능성 등이 중요시되고 있는 융·복합적 공연예술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공연예술의 활성화는 지역소비활동을 촉진시키고 사회자본기능을 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2.3 경기북부지역의 특징과 문화동향

경기북부의 지리적 위치는 서울을 북쪽에서 에워싸고 있는 곳으로 남북분단 이전에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이자 한반도의 중심부였다. 현재는 군사분계선 사이에 위치하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접근성면

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반면에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강점들도 지니고 있다.

우선 내부 환경적으로 자연환경의 보전이 양호하고 DMZ, 안보현장 등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가능지가 풍부하고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가 높다. 외부 환경적으로는 남북 간의 통로로서 산업, 교통연계의 결절점이 되고 DMZ보존, 활용,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접근성 개선에 따른 인적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경기북부 각 도시들의 문화예술 동향은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문화적 갈등해소를 위하여 지역축제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년중 일정기간동안 페스티벌 형식으로 개최된다.

의정부는 매년 5월 “의정부 극음악 축제로 도시의 이미지 개선에 성공하였고 파주는 파주예술제, 울곡문화제, 헤이리관 페스티벌, 임진강 페스티벌, 파주 북소리 페스티벌 등이 있으며 연천은 DMZ 국제음악제를 올해로 제4회째 개최하고 있다. 고양시는 가장 많은 공연시설을 갖추어 경기북부에서는 공연예술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양행주문화제, 고양호수예술축제 등의 지역문화축제도 거행된다. 그 외에도 남양주는 다산문화제, 광릉숲문화축제, 양주의 양주예술제 등이 있다.

지역공연예술축제는 자칫 축제의 개최목적이나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축제의 정확한 주제 또는 통일성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으며 축제를 개최하는 지역의 고유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주체가 되어야 할 지역민들의 참여도와 관심도 낮을 수 있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7].

지역의 문화행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들 간에 공동체 의식 형성이 최종목표이므로 지자체에서 공연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안에 유능한 공연예술단체가 많이 존재하는 것과 실력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선 연구를 살펴보면 경기북부의 발전 핵심과제로 통일을 대비한 배후 거점도시 즉, 국제자유도시와 환경 친화적 신도시 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관광 활성화 기반마련 및 정비,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문화 콘텐츠 인프라 산업의 체계적, 전략적 육성을 들 수 있다[2].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에 비하여 경기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한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도시개발 측면에서 공공시설, 대중교통수단, 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북부의 차별화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적 배경, 각 도시의 유명한 음식, 고령인구의 문화예술향유, 대학의 이전 등을 배경으로 지역고유의 특징을 나타내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예술문화를 창조하고 공유하고 지속할 수 있다면 공연예술문화에 의해서 경기북부의 개발이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3. 국내 공연예술의 현황 및 비교분석

공연예술 현황조사는 공연예술 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와 정보가 부족했던 공연예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공연예술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국내의 공연행정기관과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공연시설과 예술단체의 활동,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현황을 관찰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공연예술 활성화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3.1 공연시설

2012년을 기준으로 하는 2013년 공연예술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공연시설은 총 944개로 파악되었다. 2009년도에는 772개, 2010년도에는 820개로, 2011년도에는 868개로 조사되어 공연장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Distribution status of regional performing art center(2009, 2012) [8]

year/ Region	2009		2012	
	Center number	Percentage(%)	Center number	Percentage(%)
Total	772	100	944	100
Seoul	282	36.5	352	37.3
Busan	37	4.0	50	5.3
Daegu	32	4.1	50	5.3
Incheon	30	3.9	38	4.0
Kwangju	26	3.4	28	3.0
Daeseon	18	2.3	29	3.1
Ulsan	12	1.6	14	1.5
Gyeonggi	110	14.2	119	12.6
Kangwon	37	4.8	41	4.3

Chungbuk	25	3.2	23	2.4
Chungnam	28	3.6	31	3.3
Jeonbuk	29	3.8	30	3.2
Jeonnam	23	3.0	35	3.7
Kyungbuk	29	3.8	35	3.7
Kyungnam	39	5.1	43	4.6
Jeju	15	1.9	26	2.8

Data Source : Ministry of Cultures Sports and Tourism, Korean Arts Management, 2010~ 2013 Survey on the Performing arts reconstitute

[Table 2] Distribution status of performing art center Northern region of Gyeonggido

Region	Performing art center	Number
Yangju	Yangju art center, Yangju Byulsandeonolimadang	2
Uijungbu	Uijungbu art center(Grand, Small), Youth training center	2(3)
Pocheon	Pocheon banwol Art Hall(Grand, Small), Hanhwa Hotel&Resort, Oransigan	3(4)
Dongducheon	Dongducheon Citizen's Hall	1
Yeoncheon	Yeoncheon Sureul Art Hall(Grand Small), Yeoncheon Country residents Hall, Youth training center	3(4)
Paju	Yemak Art Hall, Yche Art Hall, Munsan Happy Center (Grand, Small), Educational and Cultural Center Unjung Happy Center, Paju Citizen's Hall(Grand, Small)	6(8)
Gapyeong	Gapyeong Art &Culture Hall	1
Namyangju	Monggol traditional art Hall, Bookhangang Outdoor Hall	2
Guri	Guri Art Hall(Cosmos Theater, rape flower Theater), Youth training center, Guri Civil Welfare Theater Lotte Departement Store Children Theater	4(5)
Goyang	Goyang art Center, Youth training center, Goyang Eulrim nuri(Eulrim Theater, Starsand Theater, Ggotme Outdoor Theater), Aramnuri(Aram Art Hall, Aram Theater, Serase Theater, Normok Ourdoor Theater), Lotte Cinema Ilsan, Hanulsori Theater, Dureplus Art Hall	7(12)
Total		31 (42)

Table 1의 지역별 공연시설 현황에서 보듯이 전국의 시, 도가 대부분 매년 공연시설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이며 그 다음은 대구, 부산, 전남, 대전, 제주, 경기의 순이다.

공연시설의 개수로 보면 경기도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연시설 수가 많은 편이나 서울이나 광역시가 하나의 도시인 것에 비하여 경기도 지역은 31개 도시로 나뉘어져 분포되어 있으므로 각 도시마다 평균 4개의 공연시설이 있는 것으로 비율로 보면 경기도 한 개 도시에 0.4%의 공연시설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전국에서 가장 공연시설이 빈약한 것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특히 공연시설이 활성화 된 도시에는 공연시설이 많이 집약되어 있는 반면에 경기북부지역의 도시는 매우 부실한 경우가 많다. Table 2는 경기북부의 공연시설 현황을 나타낸 것이고 ()안의 숫자는 공연시설에 포함된 공연장의 개수를 나타낸다.

경기북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공연시설을 살펴보면, 과천 5(7), 광명 6, 광주 2, 군포 5(6), 부천 9(11), 성남 12(15), 수원 10(13), 시흥 4, 안산 5(8), 안성 6, 안양 6(8), 양평 4, 여주 2, 용인 6, 의왕 1, 인천 4(6)개로 총 88(107)의 공연시설이 있다. 경기북부를 제외한 21개 도시에서 88개의 공연시설과 그 공연시설 안에 107개의 공연장이 있는 것에 반해서 경기북부는 10개 도시에서 31개의 공연시설과 42개의 공연장이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공연시설은 경기도 전체의 26%밖에 되지 않는다.

청소년수련관이나 백화점 내의 아트 홀, 민속예술공연장, 야외공연장등은 공연을 위한 전문시설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문예예술회관과 같은 전문공연시설을 갖춘 공연장은 경기북부 내에서도 21개에 그쳐 경기도 전체의 17.6% 로서 공연시설이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3.2 공연예술단체의 현황

2013년 문화관광체육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공연단체의 일반현황은 아래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조사모집단 2108개 단체를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 경상, 경기, 전라도의 순이다.

[Table 3] Regional Art Group & Major activity genre

Regional Art Group(2013)			Major activity genre		
Region	Art Group Number	Percentage (%)	Genre	Art Group Number	Percentage (%)
Total	2,108	100	Total	2,108	100
Seoul	944	44.8	Drama	573	27.2
Gyeonggi/Incheon	280/68	13.3/3.2	Dance	336	15.9
Kangwon	76	3.6	Western Music	678	32.2

Chungchng/Jeonra	136/177	6.5/8.4	Gukak	419	19.9
Kyungsag/Jeju	403/24	19.1/1.1	Multi	102	4.8

Data Source : Ministry of Cultures Sports and Tourism, Korean Arts Management, 2013 Survey on the Performing arts reconstitute

지역별 공연예술단체들의 주요활동장르는 양악, 연극, 국악, 무용, 복합장르 순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를 통하여 지정현황과 활동실적, 운영현황분석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아래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11월20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총471개, 2012년 8월 기준으로는 총533개, 2013년 8월 기준으로는 총590개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인된 공연예술단체는 서울이 가장 많고 경상, 경기, 전라, 강원, 충청의 순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공연단체의 증가율이 보이는 것은 관객의 흐름이 많은 대도시에 공연활동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공연예술의 특성 때문이라고 짐작되나 경기도 전역의 전문예술법인단체 90개 중 경기북부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총14개로 15.6%에 불과하다. 경기북부의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은 Table 5에서 볼 수 있다.

[Table 4] Distribution status of regional Professional Art Organization 2011~2013[9]

Year/ total, Region	2011		2012		2013	
	Total	(%)	Total	(%)	Total	(%)
Seoul	173	36.7	182	34.1	181	30.7
Gyeonggi	78	16.6	77	14.4	90	15.3
Kangwon	27	5.7	27	5.1	37	6.3
Chungcheong	16	3.4	20	3.8	26	4.4
Jeonra	48	10.2	76	14.3	81	13.7
Kyungsang	121	25.7	143	26.9	166	28.1
Jeju	8	1.7	8	1.5	9	1.5
Total	471	100	533	100	590	100

[Table 5] Professional Art Organization of North-Gyeonggi

Genre	Professional Art Organization
Exhibit event	Public Art Prism(Goyang)
Tradition	Culture Village Dulsori(Goyang), Samulkwangdea Traditional Art Research Society(Goyang), Art Madangsalpan(Uijungbu), Idame Traditional Society (Dongducheon))
	Goyang Cultural Foundation, Uijungbu art center

Dance	Chungpyeong Performing art School(Gapyeong), Kiaro dance company(Goyang)
Music	Goyang Guitar Ensemble, Goyang Philharmonic Orchestra, Seoul Guitar Quertet (Goyang) Uijungbu Youth Chamber Orchestra
Drama	Society of Hurri(Uijeungbu)

Data Source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Book of Specility Arts Coporat Organization reconstitute

경기북부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전시행사 분야에서 1개, 전통음악분야에서 4개, 공연장운영 분야에는 2개, 무용부문에 2개, 서양음악부문에 4개, 연극단체로 1개 단체가 있다.

어느 지역이나 분야에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많다는 것은 그 분야의 공연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더불어 공연 횟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공연편성을 초청공연으로만 채우거나 지역의 공연단체가 빈약하여 외부인의 공연과 지역민의 공연이 내용이나 수준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 문화산업의 성공사례가 보여주듯이 지역의 공연산업의 주체는 지역민이 되어야 하므로 지역 내에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것은 그 지역의 문화예술의 수준과 발전 가능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3 공연프로그램 현황

경기북부의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예술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의 세종문화회관과 경기북부 각 도시들의 대표적인 공연시설의 공연프로그램현황을 조사하여 횟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각 공연프로그램의 예술장르는 뮤지컬, 콘서트(대중음악), 연극, 국악, 무용, 오페라/클래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도시의 공연프로그램은 지역의 공연프로그램보다 장르 면에서 더욱 다양하고 일부 장르는 전용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의 공연장은 1~2곳의 공연장에서 모든 장르의 작품들이 공연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 많은 영화가 상영된다.

이는 지역권에 신설되는 문예회관들이 대부분 다목적홀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공연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도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는 동일한 공연장에서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이 공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각 장르별로 전용공연장에서 공연되고 대부분의 영화는 영화전용관에서 상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대도시의 인구집중화 현상, 시민의 문화수준, 공연예술단체의 활성화, 문화의 흐름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짐작되지만 중소도시에서도 전문음악홀, 연극전용극장, 영화전용관 등 전문성이 강조된 공연장의 확충으로서 발전된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6] A number of Performances by genre Sejong Art Center and Northern-Gyeonggido Art Center

Art center/ Genre	se jong Art Center	Ui jung bu Art Center	Do ng du che on Citi zen Hall	Po che on ban wol Art Hall	Ye on che on Su reul Art Hall	Gu ri Art Hall	Pa ju Ye mak Art Hall	Go ya ng Eul rim nu ri	Go ya ng Ar am nu ri
Classic & Opera	409	41	3	13	3	10	4	45	84
Musical	12	14	15	8	4	7	-	21	5
Concert	47	13	4	14	6	9	2	13	34
Drama	13	16	-	7	-	3	2	6	11
Dance	12	7	3	3	1	1	1	2	7
Gukak	149	7	-	2	-	-	2	5	1
Cinema	0	-	-	22	17	-	2	1	0
Total	642	98	25	69	31	30	13	93	142

전문시설이 되어 있으면 전문공연단의 공연을 유치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우수하고 다양한 수준 높은 공연프로그램이 들어올 수 있다. 또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도 실행하여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와 문화수준을 증진시킴으로서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욕구를 가져와 공연예술 수요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별, 수준별 공연예술소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able 7] A number of Interpark product by the genre 2013

Genre	First half year	Latter half year
Musical	1,370	930
Concert	985	930
Dance/Traditional Art	285	224
Classic/Opera	2,500	232
Drama	790	647
Total	5,930	2,963

Data Source : Korean Arts Management, 2013 Survey on the Performing arts reconstitute

Table 7은 공연예술 경기동향조사에 의한 통계분석결과와 민간영역의 문화예술 티켓판매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인터파크의 2013년도 상, 하반기현황이다. 장르별 공연은 상반기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클래식이 가장 많고 뮤지컬, 콘서트, 연극, 무용/전통예술 순이고 하반기에는 뮤지컬, 콘서트, 연극, 클래식, 무용/전통예술 순으로 많았다.

인터파크의 공연상품 수의 통계는 연간 이루어지는 장르별 공연 횟수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공연의 흐름을 말해 주고 있다.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의 유치와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해서 과주의 예매홍은 뮤지컬공연, 동두천시민회관과 연천 수레아트홀은 연극과 국악공연을, 구리아트홀 역시 국악공연 프로그램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4. 경기북부지역의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4.1 경기북부지역의 공연예술 특성화

전국의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요소들이 존재한다.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나 설화나 전설에 얽힌 상징, 역사적 사건, 특성화된 음식, 민속음악 등이다. 이러한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공연예술을 독창적으로 육성한 국내의 사례들이 있다. 지역무형자산을 공연예술 콘텐츠로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한 전통공연예술의 브랜드 상품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10], 다양한 관광연계프로그램의 개발로 관객들의 공연접근성을 제고시켜 성공한 정동극장의 브랜드공연 '미소', 공연예술 향유자 중심의 마케팅으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공연으로 성공한 '난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의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11], 제주도의 년버벌(Non-Verbal)공연인 난타아리랑 파티[12], 제주도의 상징인 해녀공연, 점프, 류, 판타스틱과 서커스 뮤지컬 제주여신 '설문대 그녀의 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

외국 문화산업의 성공사례를 보면, 공연에 참여하는 전문인들은 물론 기획과 진행자 모두가 지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베네치아의 가면 페스티벌과 옛 교황청 궁정마당을 무대로 하는 색다른 형식의 연극, 뮤지컬, 무

용, 현대음악, 미술, 비디오아트 등의 창조적인 문화행사를 펼쳐 지역축제로서 유명해진 프랑스 프랑스의 아비뇽 페스티벌,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의 탄생지라는 지역적 특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클래식음악제로서 성공시킨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양자강 연안지방에서 발생한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희곡이며 정통에서 퓨전까지 다양한 형태의 버전을 개발하여 성공한 중국 북경 경극 상설공연, 전통공연예술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인상시리즈, 10세기 델타의 흥강을 중심으로 한 북부베트남 고유의 독특한 예술이며 하노이의 호수경관을 무대로 하는 하노이의 수상인형극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축제와 공연들의 성공요인을 연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첫째, 지역의 유명한 문화요소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선택하여 특화된 장르를 문화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둘째, 공연이나 페스티벌의 운영을 문화전문가에게 맡겨서 전문적이고 견고한 공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체나 협회를 통한 적극적인 후원금을 유치하는 일이다.

넷째, 공연의 기획과 진행, 공연자,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 전문적인 예술단체를 양성하는 일과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예술의 이해를 증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연의 산업적 접근을 위해서 문화소비 집단의 심리통계 분석과 트렌드를 파악하여 문화자원을 상품화하고 가격, 유통, 홍보 면에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전략을 연구하는 것이다.

경기북부에서도 공연예술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과의 일체감 조성과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경기북부만의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연천과 과주 청정지역의 자연환경 조성, 포천의 이동갈비, 가평의 잣, 의정부의 부대찌개 등의 음식을 특화시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 음식의 역사와 유래를 스토리화한 뮤지컬이나 오페라, 연극 등의 창작공연과 함께 페스티벌을 만들어 공연과 음식을 함께 문화상품화 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같은 장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정통적인 것에서 퓨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버전을 개발, 공연하며 관

람자들이 그 지역을 둘러보고 감동하여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자연환경과 시설을 계획하고 더불어 다양하고 독특한 기념품의 개발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도 해야 한다.

4.2 공연예술단체의 활성화

공연예술단체의 활발한 활동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일이므로 공연예술단체들이 스스로 문화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일이다.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많은 견고한 기초력을 가진 재능 있고 실력 있는 인재들을 배출하여 예술단체의 구성원을 채워주는 일과 국가기관의 공연예술단체 육성방향에 따른 충분한 지원도 절실하다. 국내 공연예술현황에서 보듯이 경기북부지역의 공연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고 공연장의 전체가 동률과 공연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가동률이 대도시에 비하여 많이 미달된다는 점에서 도내 공립예술단체와 함께 많은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의 상연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공연장차원에서 다양한 공연기획과 적극적인 대관공연의 유치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기업의 경영노하우를 도입하여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운영 전문화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배출된 우수한 공연예술 인력의 공급이 급선무이며 공연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단체의 특성과 장르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하며 단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창작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로써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에게 창작 및 공연활동 무대를 확대·제공하여 지역문화예술계에 정착과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선도하도록 하여야한다. 재정적으로나 기량적으로 전문 공연예술단체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공연예술계의 뿌리가 그만큼 튼튼하고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이 최고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4.3 다양한 공연예술문화의 유지

성인문화에 대한 문화예술관람 및 문화관련 활동분석을 통한 문화예술향유 실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예술적 성향과 그 변화추이, 예술 장르별 선호도와 희망하는 문화예술관람 등을 알 수 있어 향후 예술인이나 예술교육 담당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12년 10월에 전국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만15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향유 조사에서는 예술행사 관람률이 69.6%로 나타났으며 2~3년을 주기로 해마다 예술행사관람률은 상승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각 장르의 관람률은 영화-대중음악-연극-뮤지컬-미술전시-전통예술-문학행사-서양음악-무용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조사에 의하면 예술행사의 관람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은 예전에는 경제적 부담이었으나 현재는 시간 부족이나 공연예술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술행사의 신선한 내용에 따라 관람률은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공연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들의 수준과 기호, 눈높이에 맞는 공연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공연예술이 모든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일깨우고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주요 매개체임을 널리 주지시켜 공연관람 참여를 유도하는 공연예술의 소비 활성화 운동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융합예술의 경우 해외작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규모가 작더라도 내용이 알차고 실험성과 창의성이 번득이는 우리 정서에 맞는 공연예술 창작작품을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한 일이다. 지역을 잘 아는 지역민들의 공연단체가 지역의 이미지를 소개할 수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을 개발하는 것이 지역의 공연예술 마케팅과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예술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종합예술인 공연문화를 풍성하게 살찌우기 위해서는 공연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4 우수한 공연예술문화를 위한 전문적

교육의 발전

예술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달성과 지역의 공연예술문화의 광범위한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지역의 공연예술문화의 특성화, 예술단체의 육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의 유지 등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술 각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이다. 즉, 문화협동워크를 형성하는 휴먼네트워크의 구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연예술의 인적자원이 많아질 때 다양한 공연예술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지며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역예술은 지역문화의 독자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신, 지역의 예술인들의 주인의식 속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담아낼 시설의 규모나 양만큼이나 예술인재들도 함께 탄실하게 건재해야 한다. 현대는 고도의 산업화로 예술, 문화의 변화는 실로 대단한 수준에 올랐으며 많은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열망은 생산과 소비라는 틀 속에서 더욱 커지면서 재 생산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어내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인근지역으로서 공연 특성화, 활성화면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우수한 공연예술 인력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필요인력을 양성할 교육기관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내 대학은 4년제 38개, 2년제 33개, 대학원대학 11개 등 모두 82개 대학이 있다. 전국 350개 대학의 23.4%에 해당한다. 경기북부의 소재 대학은 4년제 6개, 2년제 5개, 대학원대학 3개 등으로 총 14개의 대학이 있다. 이들 대학 중 문화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예술학과 있는 학교는 2~3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2020 경기도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4년제 대학이 11곳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우수한 공연예술인력이란 예술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할 수 있는 기초가 견고한 전문예술인을 의미한다. 기본이 탄탄한 전문예술인들을 위한 교육은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틀 잡힌 교육체계과정으로 예술교육에 헌신해야 우수한 예술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 쉽게 변화하는 국민의 문화향유 또는 문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예술 각 분야, 각 장르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기초가 탄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의 예술단체에 우수한 일원을 공급하고,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서 지역민의 정서순화와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위하여 진정한 예술성을 승화시켜 감동의 공연에 임할 수 있는 예술인의 양성이야말로 지역의 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다. 더불어 사회전반에 걸친 공연예술의 보급과 육성을 위해 예술분야의 관련한 정부기관이나 지역의 지자체에 소속된 예술단체들에 의해서 공연물에 대한 정보와 사전지식을 전달하고 또 지역민들이 공연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별, 수준별 교육의 기회도 제공한다면 공연예술을 공유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을 얻게 될 것이다.

5. 결론

2013년 2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내세우며,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 등 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창조의 꽃을 피우는 창조경제시대를 열고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 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예술에 대한 평가와 기대효과가 과거와는 달리 재정립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질적인 수준을 고양시키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주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예술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 논리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연예술의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과 경기북부지역의 공연시설, 공연단체, 공연프로그램의 현황 통해서 경기북부지역의 전체적인 공연예술의 흐름을 인지하고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공연예술의 창작과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의 공연예술에 대한 전망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북부만의 공연예술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과 문화적 상상을 스토리텔링화한 창작공연을 융합시킴으로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기북부만의 경쟁력 있는 고유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에서 배출된 우수한 공연예술 인력으로 구성된 정체성이 분명한 공연예술단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공연예술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폭넓은 공연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예술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달성과 지역의 공연예술문화의 광범위한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예술단체에 우수한 일원을 공급할 수 있는 예술 각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이다. 따라서 경기북부의 각 교육기관에 예술 전문인을 키울 수 있는 예술학과를 늘려야 하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교육을 실행하고 지역민이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하는 것이 경기북부지역의 공연예술 활성화는 물론이며 지역문화예술 수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References

- [1] Sung Yeop Lee, "A Study on Role Adjustment and Combination in Korean Performing Arts", Korean Culture Economic Society 「Research Culture Economic」, Vol. 5 No.2, p.24, December. 2002.
- [2] Seon Bong Kim, Young Woon Jang, "Improvement Plan in Northern Gyeonggi with Military Facilities Protected Area", Journal of Shinheung University, Vol.35 pp.2~3. 2012,
- [3] DusanDonga, "Dusan World Encyclopedia" (www.encyber.com)
- [4] Chang Ki Woo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affected satisfaction of audiences at performing arts", Hongik University, Master's Thesis, p.5, 2007.
- [5] Korean Culture Economic Society, "Meet Culture Economic", p.67, Kimyungsa Publishers, 2002.
- [6] Min Rha, "A Study on Establishing After-marketing Strategy for Customer Satisfaction of Performing arts",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Thesis, pp. 11~12, 2005.
- [7] A Rm Jeong, "Research on the Invigoration of the Reg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s -A case study of the Uijeongbu Music theatre Festival-, Seok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p.67, 2012.
- [8] Ministry of Cultures Sports and Tourism, "2010~2013 Survey on the Performing arts", Seoul, Ministry of Cultures Sports and Tourism, 2010~2013.
- [9] Ministry of Cultures Sports and Tourism, Korean Arts Managements Center, "2011~2013 A Book of Speciality Arts Corporat Organization", Seoul, Ministry of Cultures Sports and Tourism, 2011~2013.
- [10] Gwang-Wook Kim, "A Plan for Activating Gwangju Brend Performance", Gwangju, Focus Gwangju, p.18, 2011.
- [11] Se Gil Jang,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Progress direction for Brend Performing Arts in Jeonbuk",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2011.
- [12] Seung Hoon Chung, Jung Hee Kim, "The Utilization of Performing Arts as Cultural Tourism Products in Jeju Island : An Exploratory Study, Jeju Development Institute, 2011.
- [13] Kim Hyo-Jeong, "Policy Measures for Increasing Cultural Job Creation through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p.20, 2013.
- [14] Joo Ho Kim, Ho Sung Yong, "Arts Management", Kimyoungsa Publisher, 2002.

- [15] Yeon Ho Seo, "Principle and History of Korea Performing arts", Drama and Human, 2011.

박 주 원(Joo-Won Park)

[정회원]



- 1984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기악과 졸업(음악학사)
- 1986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 기악과 (음악석사)
- 1993년 6월 : 프랑스 파리 에콜노르말 졸업(피아노 디플롬)
- 1994년 6월 : 프랑스 파리 국제음악원 졸업(피아노 최고연주자과정 디플롬)
- 1997년 3월 ~ 2005년 2월 : 김천대학교 음악과 교수
- 2005년 3월 ~ 2014년 2월 : 신홍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음악교육, 기악연주, 공연예술